



쏟아지는 공연·음악회... 도심서 즐기는 문화 피서

29일 '7월 문화가 있는 날' 광주·전남 다채로운 문화행사

여름 휴가철을 맞아 29일 '문화가 있는 날' (매달 마지막 수요일)이 어느 때보다 풍성하게 꾸러졌다. 공연장과 미술관, 극장 등에서 다양한 할애 혜택을 받으면서 도심 속 문화 피서를 즐겨보자.

광산문화재단은 오후 5시 문예회관 야외무대에서 '광산하우스콘서트6-스트리트 댄스, 스탠딩 코리야'를 연다.

이번 공연에는 여성타악그룹 '도도'를 비롯해 비보이 그룹 '캠블러 크루', 역동적인 무술을 선보일 '스타무브', 한국인 최초로 미국 NBC방송 재능 경연 프로그램에 진출한 팝핀 그룹 '에니메이션 크루'가 출연한다.

또 6시30분부터 광산문화회관 로비에서는 미술놀이터 '화가의 만찬' 작품전시회가 열린다. 문의 062-960-8253.

유·스퀘어 문화관은 오후 6시 유·스퀘어 야외무대에서 '제7회 아름다운 유·스퀘어 음악회'를 개최한다. 이날 무대에는 빛고을문화예술공연위원회가 출연해 'Memory', 'Over the Rainbow', 'I could have danced all night' 등을 들려준다.

또 유·스퀘어문화관 동산아트홀에서는 연극 '라이어 2탄'을 40% 할인된 2만1000원에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광주문화재단은 낮 12시20분 빛고을시민문화관 야외광장에서 퓨전국악실내악단 예타를 초청, 런치콘서트를 진행한다.

연주 레퍼토리는 양방언 곡 'Prince of Jeju', 판소리 '춘향가' 중 '속대머리', 신문화사 작곡 '아름다운 나라' 연주와 국악가요 '배 띄워라' 등이다. 문의 062-360-8431.

광주시립미술관은 이날 오후 7시 미술관 본관 건너편 야외 음악당에서 비르투오조 트롬본 앙상블을 초대해 '트롬본을 춤추는 음악들' 공연을 진행한다. 비르투오조 트롬본 앙상블은 단원 대부분이 인천시립교향악단,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등 국내유명오케스트라에서 활동하는 젊은 음악가들로 구성됐다.

공연과 함께 본관에서는 매점 이창주전 뮤지엄 토크 및 국악공연이 열리고, 상록전시관에서는 한 여름밤의 부채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문의 062-613-7100.

담양 대담미술관은 이날 오후 7시부터 '8월의 그날, 여름햇살처럼 강렬했던 자유를 향한 갈망이야'를 주제로 광복회와 지역주민이 함께 하는 광복절맞이 문화나눔마당 행사를 개최한다. 대담미술관 관계자들은 8월15일 광복절을 앞두고 광복회와 함께 중국 독립운동 유적지 등을 답사하고 돌아왔다.

이날 행사에서는 국근섭 명가해 대표의 국

타악·비보이·팝핀 그룹 출연

광산하우스콘서트-스트리트 댄스

유·스퀘어 야외무대 음악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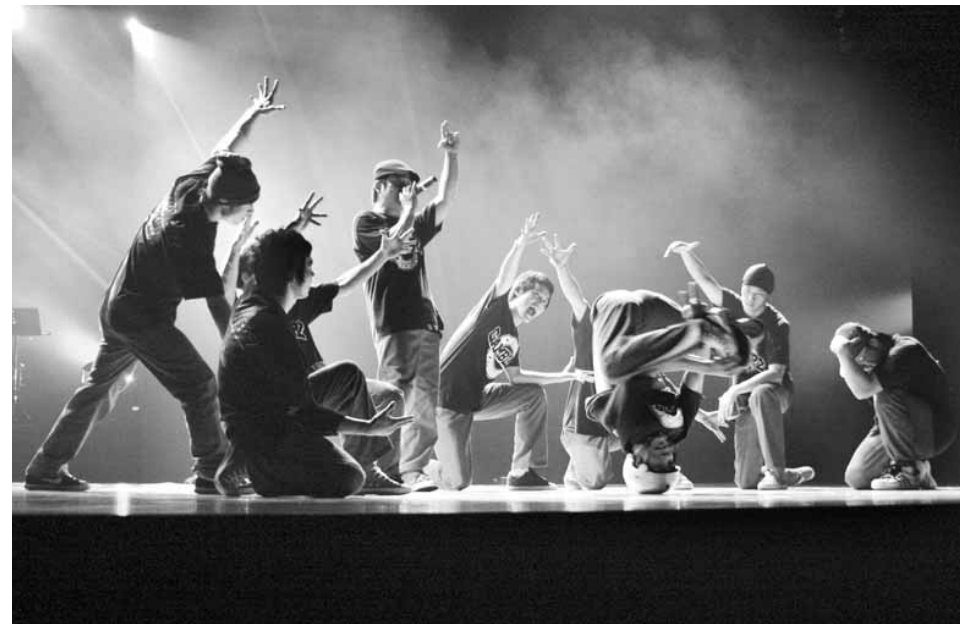
광주문화재단 런치콘서트

최백호 콘서트 네이버 생중계

영화관 오후 6~8시 할인 상영



가수 최백호



광산문화회관에서 공연하는 비보이 그룹 '캠블러 크루'.

악공연과 함께 광복절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는 세미나가 진행된다. 또 일제강점기를 경험한 이들의 당시 상황도 들을 수 있다. 문의 061-381-0082.

화순 소소미술관도 이날 오후 7시부터 인디 밴드 '별이삼 우물정'을 초대해 문화의 날 행사를 진행한다. 별이삼 우물정은 '잠깐 눈을 좀 닫고' '육탄방에서' '희망' 등을 들려줄 예정이다. 문의 061-375-1995.

국립미술관도 문화가 있는 날 연계 프로그램 '문화를 즐겨라'를 오는 12월까지 운영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인문학 강의, 작가탐방, 기법체험 등으로 구성돼 있다. 대상은 초·중등학생 및 대학생, 성인으로 회당 15명을 모집한다. 참가비는 무료다. 문의 062-232-7335.

은암미술관은 29일부터 11월25일까지 문

화가 있는 날과 연계해 '미술관 왔수다'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성인을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현대미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기획됐다.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진행되며 드로잉하기, 작품 감상후 캘리그래피로 작품 만들기 등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문의 062-231-5299.

또 이날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직영관 등 광주·전남 주요 영화관에서는 오후 6~8시에 상영되는 영화를 5000원에 관람할 수 있다.

한편 이달의 '집들이 콘서트'는 마포구 뮤지엄에서 오후 8시부터 열린다. 가수 최백호와 스윗소로우, 에코브릿지가 참여하며, 네이버 티브이 TV캐스트를 통해 생중계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전남 문화자산 찾아 제대로 알리겠다”

설립 6년 전남문화예술재단 첫 민간 사무처장 오영상씨

전문성 강화·사업 다각화 등 변화 기대

“전남의 문화 자산을 찾고, 지역 문화를 제대로 알릴 수 있는 전남문화예술재단을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27일 전남문화예술재단 사무처장에 취임한 오영상(54)씨는 전남이 가진 문화 자산에 주목했다.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문화 자산을 찾아 이를 알리는 게 문화예술재단의 중요한 일이다.

그동안 전남도에서 파견된 공무원이 사무처장을 맡아온 전남문화예술재단은 이번에 첫 민간 사무처장을 선임했다. 지난 2009년 문을 연 전남문화예술재단은 설립 6년 만에 민간사무처장 체제로 전환하면서 전문성 강화와 사업 다각화 등 새로운 변화를 꾀하고 있다.

또 그는 “정부 예산 지원만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재단에서 다양한 문화를 발굴하면서 예산을 만들어 가는 방식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나주에 등지를 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광주 아시아문화전당과의 협력도 강조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토대가 되는 호남의 문화 예술 뿌리가 전남에 있고, 이를 발굴·계승하며 이들 기관과 협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오 신임 사무처장은 “문화수도 광주의 뿌리는 전



남에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전남 문화자원을 활용해 창의적인 자체 사업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또 “전남의 문화예술 자원을 발굴·활용해 전남 고유의 문화브랜드를 개발하고 문화관광 활성화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생활 밀착형 문화예술 기반 조성 등 문화예술 저변 확대를 통해 도민의 문화 체감도를 높이고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등 문화예술의 다양한 사회적 기능을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오 신임 사무처장은 해남신문 편집국장, 국립공원관리공단 정책홍보담당관 등을 역임했으며, 전라남도 가고싶은섬 가꾸기 자문위원, 광주시 서구문화원 이사 등으로 재직하면서 언론계와 문화·사회단체에서 폭넓은 활동을 해왔다.

또 ‘전라도 야생화’, ‘전라도 탐조여행-새들이 놀자’, ‘땅끝 해남의 자연자원’, ‘하늘에서 본 관광전남’ 등의 책을 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전남대 ‘책과 삶, 일상속의 책’ 사진 공모전...8월 15일까지 접수

범 시·도민 독서운동 '2015 광주·전남이 읽고 톡하다(이하 광주·전남 독)'를 추진하고 있는 전남대학교(총장 지병문)가 27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사진 공모전을 갖는다.

‘책과 삶, 일상속의 책’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공모전에는 ▲광주·전남 독 활동 ▲도서관 및 독서 등 일상 속에서 책과 함께 하는 모습이 담긴 작품이면 응모가 가능하다.

응모 방법은 촬영한 사진을 JPEG파일로 광주·전남 독 홈페이지(<http://gtalk.jnu.ac.kr>) '사진 공모전' 전용 사이트에 올리면 된다. 1인당 4점 이내로

출품할 수 있다.

전남대학교는 오는 8월 15일까지 사진을 접수한 뒤 8월 19일~23일 네티즌의 선호도 조사 방식으로 온라인 심사를 해 10개의 작품을 선정한다. 선정된 작품에 대해서는 최우수상(1명) 10만원 등 문화상품권을 증정한다.

성애순 도서관장은 “이번 공모전은 지역민에게 다양한 독후활동 경험을 제공하고 광주·전남 독 사업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며 시·도민의 적극 참여를 당부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표절논란·문학권력·출판상업주의 반성과 성찰

한국작가회의 소위원회 구성...토론·간담회, 표절 차용 범위 등 논의

한국작가회의(이사장 이시영)는 25일 열린 한국작가회의 이사회에서 ‘한국문학의 자기성찰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했다.

최근의 표절 논란과 잇따라 제기된 ‘문학권력’, ‘출판상업주의’를 포함한 우리 문학의 현안에 대해 심도 깊게 들여다보기 위해 결성된 ‘한국문학의 자기성찰을 위한 소위원회’는 자성적이며 생산적인 논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찾기로 했다.

소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사인(시인·문학평론가), 김응교(시인·문학평론가), 박수연(문학평론가), 정은경(문학평론가·원광대 교수), 김성규(시인·한국

작가회의 사무처장) 등이 선임되었으며 활동 시한은 오는 8월 1일부터 2016년 1월 31일까지다.

소위에서는 논란의 대상이 된 출판사와의 협의를 통해 비공개-공개 토론회 및 간담회, 표절 텍스트 상호 연구 등을 다룰 예정이다. 또한 표절 및 창작적 차용의 범위, 이른바 문학권력의 독특한 작동 방식 등 다른 현상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소위원회는 이와 같은 활동과 경과를 보고서 형태로 답자 작가회의 회원들은 물론, 독자들과도 함께 공유할 예정이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3년

광주일보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키잡

광고문의 (062) 227-9600
신문구독 (062) 220-0551
예향구독 (062) 220-0550

NAVER 건강정보 단비플라워 농약제로

단비플라워

죽아화원3단 근조화원3단

**365일 연중무휴
가격변동 없음!**

경조화환 7만원 시외 8만원

전화. 062)233-9961 Fax. 062)672-996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유유네이처
Ginsam RG3 X150

인삼 대사사포닌 유유인삼추출액 YY-351

70여년 전통의 유유제약 인삼 대사사포닌 RG3 특허기술로 제조
인삼 대사사포닌 RG3일일(1병당) 60mg 함유
국내 유수 대학병원의 연구개발 참여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인제대학교 백병원, 경희대학교병원)

유유네이처 방문판매 지사모집

- 현재 방문판매 사무실을 운영하고 계신 분
- 건강기능식품, 화장품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
- 웰빙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
- 소자본 창업

문의 | 지사개설
Tel. 062-363-8600
Tel. 010-4602-9897

yuyu nature
HEALTH & LIVING